

11 판화의 다양한 얼굴

학습 목표 · 판화의 종류와 원리, 표현 기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연계 미술 ①-09

생각 열기



사진 속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지,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일상용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집에서 간편하게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이다.

판화는 나무, 금속, 돌 등의 판에 그림을 새긴 뒤 찍어서 표현하는 미술 분야이다. 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 반복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손으로 그린 그림과는 다른 독특한 질감 표현이나 단순한 형태, 선명한 색감이 특징적이다. 판화에는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이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김미로(한국/1975~) **그들을 위한 공간**(에칭, 석판화 콜라주/53x75cm/2015년 작) 에칭과 석판화로 만든 판을 얇은 한지에 찍은 뒤, 겹쳐 붙여 만든 작품으로 이미지의 투명감이 느껴진다.



최유희(학생 작품) **공주시리즈 중 「백설」**(드라이포인트/10x10cm/2016년 작)



히로 야마가타(Hiro Yamagata/일본/1948~) **An american in paris**(실크 스크린/28x22.25cm/1985년 작) 선명한 색상을 사용한 팝 아트 계열의 실크 스크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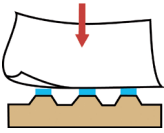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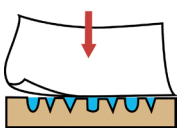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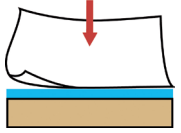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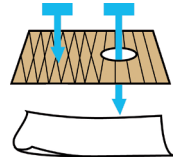
탐구 활동 1 판화 작품 분석하기

-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었는지 말해 보자.
- 어떤 재료와 기법을 썼는지 말해 보자.
-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해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던 시대 상황과 주로 다룬 주제 등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자.
- 작가가 해당 표현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대상 및 작품 성향과 관련하여 설득력 있게 적어 보자.



오운(1946~1986/한국) **바람부는 곳**(광목에 채색 목판/29x36cm/1985년 작) 강한 색 대비와 단순한 형태, 갈자국의 흔적이 특징적인 목판화 작품이다.

판화의 유형별 특징

구분	블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작품				
원리	판의 볼록한 면에 잉크를 묻혀 찍는 방법 	판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잉크를 채워 프레스기의 압력을 이용해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 	판에 새기는 과정 없이 판 면에 직접 그림을 그린 뒤,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 	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으로 잉크를 밀어 넣어 찍는 방법 
표현 기법	목판화, 고무 판화, 직판화, 지판화, 리놀륨 판화	직접법: 인그레이빙, 메조틴트, 드라이포인트 간접법: 에칭, 에퀴틴트	석판화, 모노타이프	스텐실, 실크 스크린
특징	① 형태가 단순 ② 조각칼에 의한 칼자국의 멋과 흔적이 나타남. ③ 흑백 대비가 선명 ④ 다양하고 섬세한 색채 표현과 세밀하고 정교한 표현이 어려움.	① 세밀하고 날카로운 선과 섬세한 표현, 명암 표현이 가능 ② 제작 과정이 복잡 ③ 재료 사용의 숙련도가 필요 ④ 비용이 많이 들고 수정이 어려움.	① 농담 효과, 붓의 터치 표현이 가능 ② 직접 그린 그림과 가장 느낌이 비슷 ③ 물과 기름이 반발하는 원리 이용	① 제판 이미지와 인쇄 이미지의 좌우가 바뀌지 않음. ② 제작이 간편해 실생활에 많이 사용 ③ 다양한 재료에 인쇄 가능 ④ 단순한 형태와 명확한 윤곽선 ⑤ 제한적인 색채 표현

더 알아보기 판화의 용구



스퀴즈
그림이나 글씨가 찍히도록 잉크를 눌러서 밀어내는 기구



리소크레용
기름기를 가진 드로잉 재료



니들
날카롭고 예리한 선을 새기는 도구



롤러
판면에 잉크를 바르는 도구



조각도
나무나 고무판을 새기는 도구



프레스기
압력을 주어 흠에 메워진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기구

탐구 활동 2 용구 알아보기

왼쪽에 있는 용구들은 각각 어떤 판화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인지 구분해 볼까요?

블록 판화: _____

오목 판화: _____

평판화: _____

공판화: _____

점검해 보기

- 판화의 종류와 원리, 표현 기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 모듈별로 판화의 종류와 기법,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하고 예시 작품을 찾은 뒤, 판화 사용 설명서 만들어 보자.

12 공간 속의 입체 표현

- 학습 목표**
-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입체로 표현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확장된 입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연계 미술 ①-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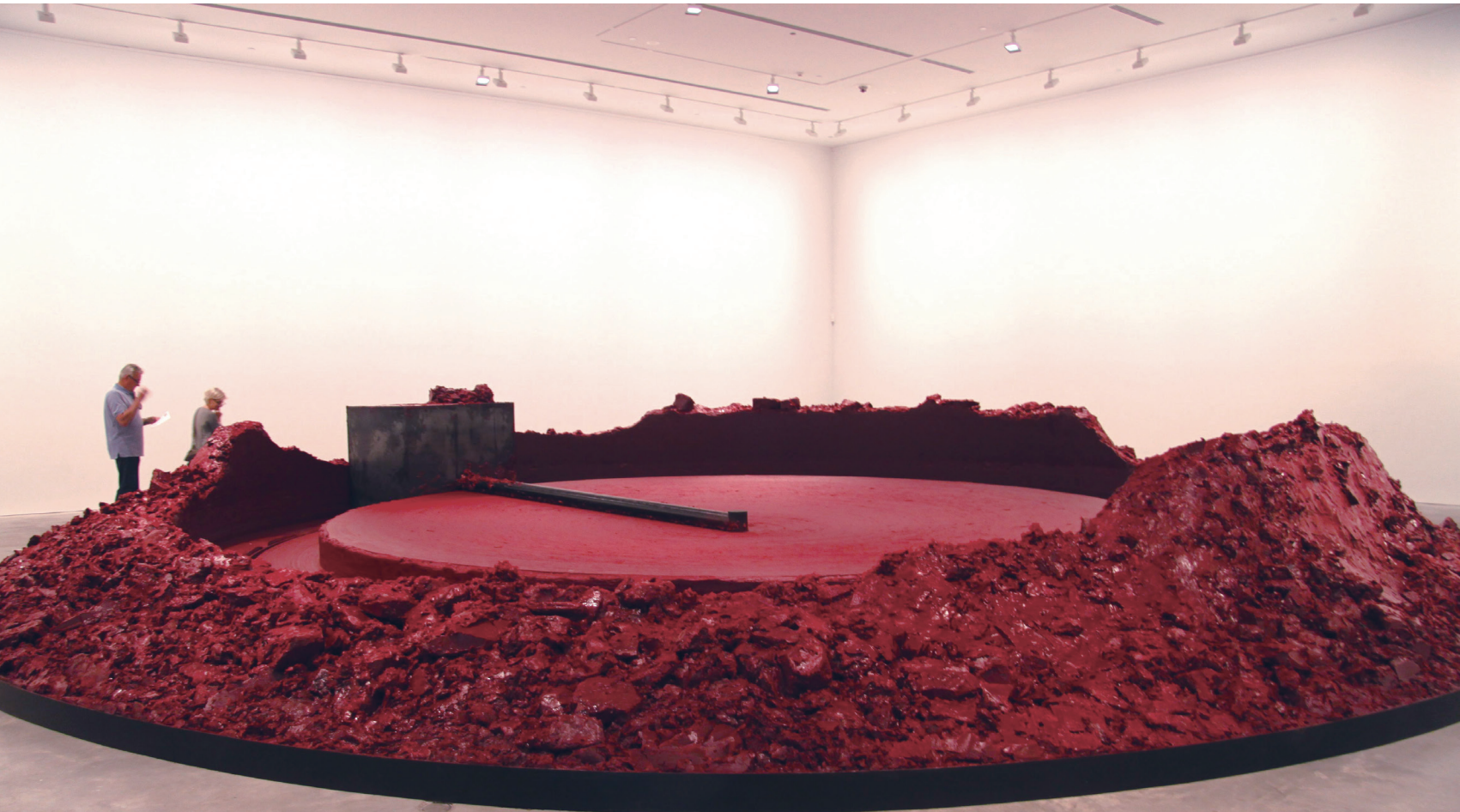
생각 열기

입체 표현과 평면 표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입체 표현은 평평한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벽에 걸어 전시하는 회화와 달리 다양한 재료로 형태를 만들어 공간 속에 표현하는 미술이다. 또한, 한 방향에서 감상하는 평면 표현과는 다르게 전, 후, 좌, 우로 둘러보아야 작품을 완전히 볼 수 있다. 작품이 놓이는 장소나 주위 환경, 보는 방향과 빛의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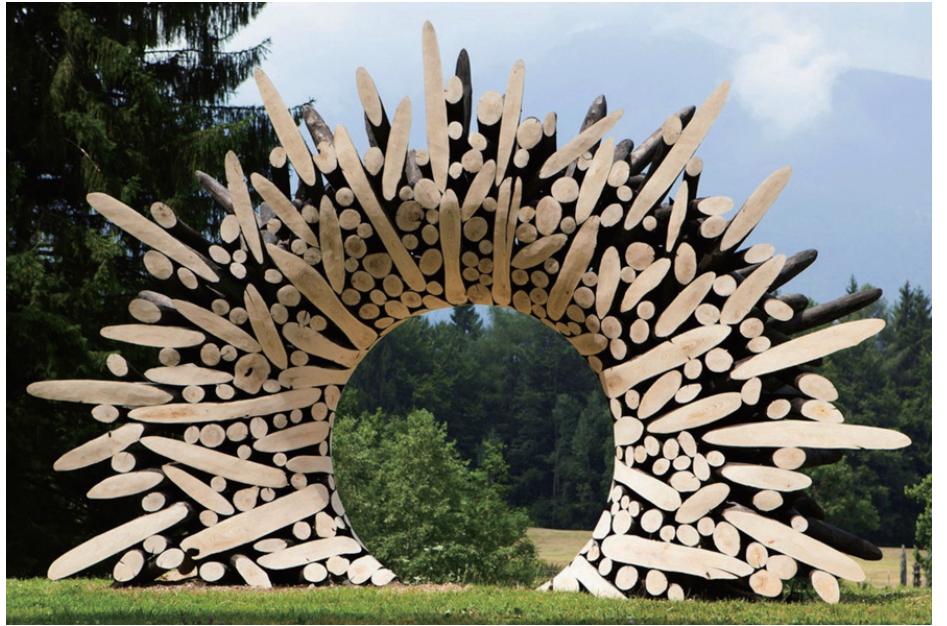


카푸어(인도→영국/Kapoor, Anish/1954~), 나의 붉은 모국(왁스, 유성 물감, 철 구조물과 모터/높이 1,200cm/2003년 작) 거대한 해머가 한 시간에 한 바퀴씩 붉은 왁스 덩어리를 긁고 지나간 흔적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입체 표현의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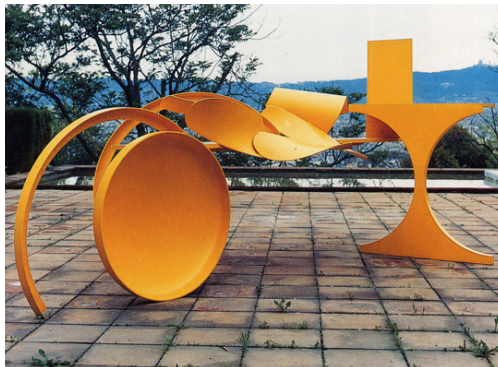
미술은 작품에 사용하는 각각의 재료들이 가진 딱딱함, 촉촉함, 거칠 거칠함, 부드러움 등 고유의 성질에 따라 표현의 방법과 형태가 달라진다. 흙, 나무, 돌 등 순수한 자연의 재료와 더불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은 미술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재호(한국/1965~) 0121-1110=115075(밤나무/560x130x360cm/2015년 작)



로댕(Rodin, Auguste/프랑스/1840~1917) 신의 손, 연인 (대리석/95.5x75x56cm/1896~1916년 작)



카로(Caro, Anthony/영국/1924~2013) 태양의 축제(철판/181.5x416.5x218.5cm/1969~1970년 작)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여 공간에 드로잉하듯이 표현하고 노랑을 채색하여 본래 철이 가진 무거운 느낌보다는 산뜻함을 준다.



올덴버그(Oldenburger, Claes/스웨덴→미국/1929~) 부드러운 비올라(캔버스, 레진, 끈, 금속에 라텍스 페인트/264.2x152.4x55.9cm/2002년 작) 조각은 딱딱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흐느적거리는 물질을 사용하였다.

탐구 활동 1 새로운 재료로 재해석한 우리의 탑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전통 석탑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두 탑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 촉각적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
- 주변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 전통 조각을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국사 3층 석탑(석조/높이 8.2m/통일 신라)



도홍록(한국/1956~2016) 오리엔탈 모뉴먼트(스테인리스 스틸/150x150x400cm/2014년 작)

입체 표현의 경계를 넘어

오늘날의 입체 표현은 회화나 조각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표현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일상용품 등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작품에 활용한다. 기존 조소의 한계를 넘어 독창적이고 실험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입체 표현이 주는 상상력과 즐거움을 발견해 보자.



지용호(한국/1978~) **Lion 7**(페타이어, 스테인리스 스틸/500x150x200cm/2012년 작) 버려지는 페타이어로 제작하였다.



아르망(Armand Pierre Fernandez/프랑스→미국/1928~2005) **장기 주차**(콘크리트, 자동차/600x600x1,950cm/1982년 작) 60대의 자동차를 1,600톤의 콘크리트 속에 박아 만든 아상블라주로 현대 산업 사회의 현실을 거대한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권오상(한국/1974~) **무제**(혼합 재료, 230x85x80cm/2013년 작) 입체로 만든 사람의 모형에 사방에서 찍은 인물 사진을 정교하게 붙여 표현하였다.



헨슨(Hanson, Duane/미국/1925~1996) **여행객들 2**(유리 섬유, 혼합 재료) 인물의 피부와 표정 등을 실제 인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고 옷, 신발, 가방 등 갖가지 소지품까지 지니게 하여 물질적 풍요와 대중 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더 알아보기 | 사람의 신체가 미술이 될 수 있을까?

퍼포먼스는 행위 예술이라고도 하며 신체를 표현의 도구로 삼는 미술을 말한다. 대개 관객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미리 계획된 각본을 따르거나 즉흥적으로 실행되기도 한다.



길버트와 조지(Gilbert Proesch, George Passmore/영국/1943~, 1942~) **노래하는 조각**(퍼포먼스/1969년 작)

용어 설명

- 오브제: 일상 용품이 미술 작품이 되면서 원래 가진 목적과 용도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
- 정크 아트: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소재로 제작하는 미술
- 아상블라주: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여러 개 모으고 쌓아서 만든 작품

장소를 생각한 미술

설치 미술은 작품이 놓이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특정한 공간의 여건에 맞추어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이다. 주위의 모든 환경적 요소가 작품의 일부가 되며 공간 안에 들어간 관람객은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통해 작품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

! 생각해 보기

전시가 끝난 설치 미술 작품은 어떻게 보관할까?

서도호(한국/1962~) /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폴리에스터 천, 금속 틀/1,530x1,283x1,297cm/2013년 작) 미국 유희 시절 작가가 거주했던 아파트 안에 한국에서 살았던 전통 한옥을 매달아 실제 건물 크기로 만들어 낸 대형 천 설치 작품. '공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하고 낯선 감각과 특정 지역과 위치에 고정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공의 경계를 가르는 새로운 의미의 공간을 표현하였다.



! 탐구 활동 2 공공장소로 나간 예술 알아보기

입체로 만들어진 작품은 규모 등의 특성상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 조형물을 세울 때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공공장소에 세워진 조형물의 역할은 무엇일까?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한 미술품을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 조형물을 조사하여 감상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세라(미국/Richard Serra/1939~) **기울어진 호**(강철/3.6×36m/1981년 설치, 1989년 철거)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미술품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보로프스키(Borofsky, Jonathan/미국/1942~) **하늘로 향해 걷기**(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섬유/높이 3,048cm/2006년 작)

✓ 점검해 보기

-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입체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된 입체 작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광장의 한 가운데를 가로막은 미술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13 새로운 매체와 미술의 변화

학습 목표 ·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미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매체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계 미술 ①-11

생각 열기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960년대의 비디오 매체를 바탕으로 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기존의 미술 개념과 소통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 그래픽, 사진, 영상 등 디지털 매체들은 전통적인 미술 표현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미술 양식을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뉴 미디어를 통해 그 영역이 더 확장되었다.

빛의 예술! 사진 | 짧은 순간을 정지시켜 이미지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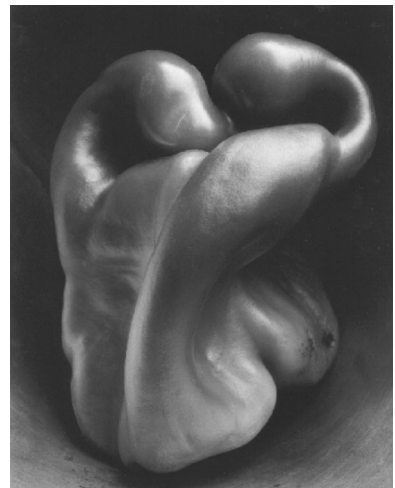
단 한 장의 이미지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성을 뛰어넘어 독립성을 가지고 작가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 예술로서의 사진

이명호(한국/1975~) *Tree, Ink on Paper*(천/620×520cm/2011년 작) 나무를 촬영한 캔버스를 자연으로 이동하여 회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사진이 갖는 기록성을 뛰어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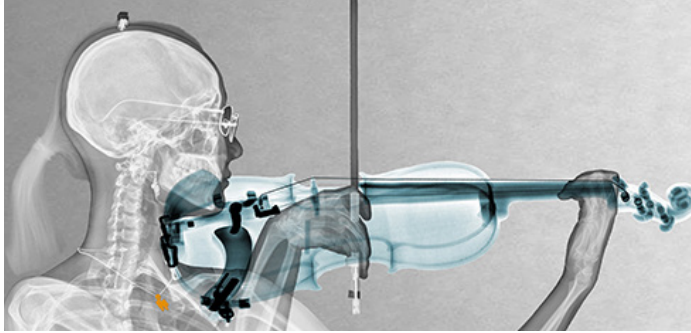


웨스턴(Weston, Edward/미국/1886~1958) *피망*(사진/가변 크기/1930년 작) 피망을 찍었지만 신체 일부로 느껴지도록 근접 촬영하여 다른 의미로 생성했다.



브레송(Bresson, Henri cartier/프랑스/1908~2004) *생 라자르 역 뒤에서*(사진/가변 크기/1932년 작) 고인 물 위를 도약하는 남자를 표현하였다. 순간을 포착한 이 작품은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이라는 사진 예술의 미학을 탄생시켰다.

◆ 색다른 표현의 사진



정태섭(한국/1954~) 바이올린 위의 선율(피그먼트 프린트, 엑스레이(X-rays)/72×150cm/2010년 작) 인체를 엑스레이(X-rays)나 CT 등 영상 장비로 촬영하고 컴퓨터 그래픽 처리하여 작품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박승훈(한국/1978~) TEXTUS 201-1 Wall Street 1(Digital C-print/120×150cm/2014년 작) 다양한 의미를 가진 대상을 영화용 필름으로 조각나게 촬영한 후 해체하고 다시 필름을 엮어 재구성하는 포토 콜라주 형식을 사용하여 원래의 이미지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 이야기가 있는 사진



리드(Reed, Eli/미국/1946~) 노랑진(사진/디지털 이미지/2015년 작) 매그넘 사진의 비밀전, 브릴리언트 코리아(Brilliant Korea)에 소개된 작품으로 육교를 오르는 수험생의 뒷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성공에 대한 집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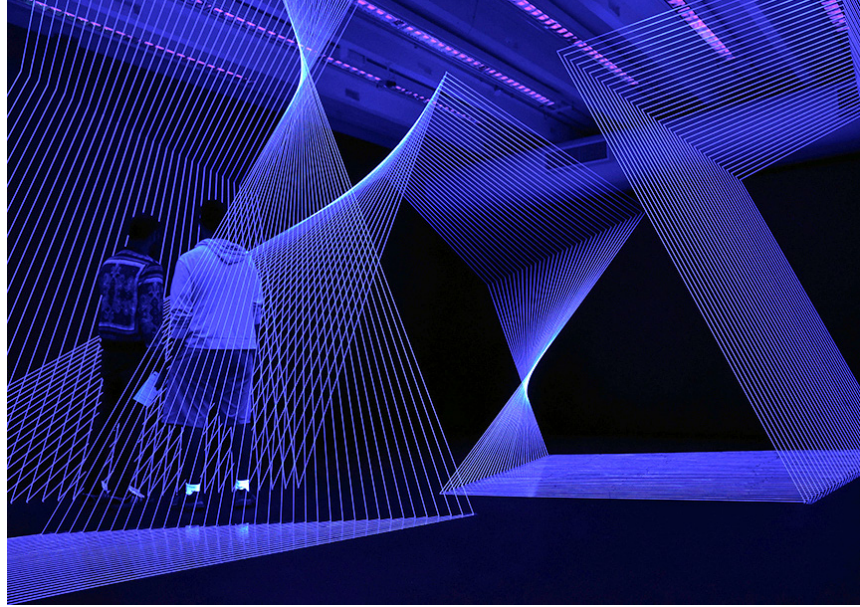
들로름(Delorme, Alain/프랑스/1979~) Totem # 11(사진/디지털 이미지/2010년 작)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꾼 가족을 통해 소외 계층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읽을거리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이념을 가진 20세기 포토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 그룹이다. 1947년에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로버트 카파(Robert Capa), 데이비드 시무어(David Seymour), 조지 로저(George Rodger) 등의 사진가들이 설립하였다. 이 그룹은 특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하면서도 사진가의 시각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자신의 입장과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 자신들의 개성과 특징이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영상 디자인 |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

영상 디자인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모션 그래픽, 라이트 아트 등 시간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빛, 소리, 시각 매체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최정문(한국/1967~) In. visible - Fold(빛/가변 크기/2015년 작) 푸른 실내 공간을 빛이 굴절된 라이트 아트로 표현하였다.



놀란(Nolan, Christopher/영국/1970~) 인터스텔라(디지털 이미지/2014년 작)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블랙홀로 들어가는 우주인을 표현하였다.

◆ 애니메이션의 원리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사물을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소마트로프, 조트로프, 플립 북 등의 방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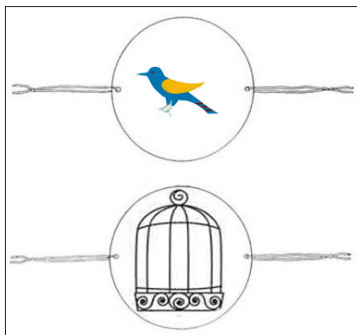
D사(미국) 토이 스토리(애니메이션/2010년 작) 장난감들을 의인화한 애니메이션이다.



I사, O사(한국) 뽀로로(디지털 이미지/2003년 작) 펭귄을 소재로 한 캐릭터이다.

용어 설명

만화: 만화는 간결한 그림과 글로 대상의 특징이나 성격, 사건의 전개 등을 과장, 변형, 생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과 함께 내용이 전개되므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보는 즐거움을 준다. 만화는 형식에 따라 한 컷으로 만드는 카툰,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네 컷짜리 만화, 긴 줄거리에 어울리는 여러 컷의 만화가 있다.



소마트로프(Thaumatrope) 양면의 그림이 서로 다른 원판을 회전시키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조트로프(Zoetrope) 움직임이 세분되어 그려진 회전판을 돌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플립 북(Flip book) 일정한 규격의 종이 위에 움직이는 장면을 조금씩 변화를 주어 그림을 그린 후 연속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기법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표현 방식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뉘는데 그림 애니메이션(그려서 표현하는 셀, 페이퍼, 모래 등), 모델 애니메이션(소품이나 모델을 움직이는 클레이, 컷아웃, 오브젝트, 픽셀레이션 등),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 합성 애니메이션이 있다.

애니메이션은 영상이 실제 눈에 머문 것보다 오래 남는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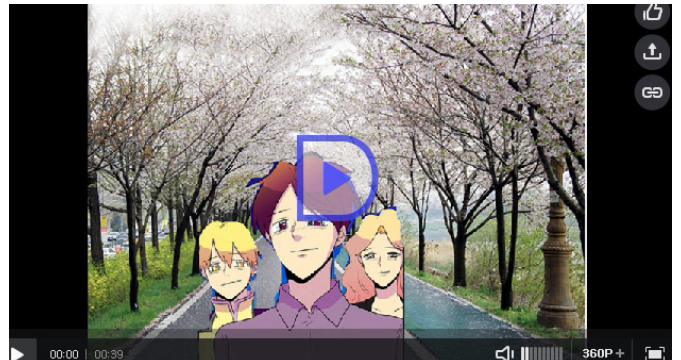
- 셀(cel animation): 종이나 필름에 그림을 그린 후 움직임을 여러 셀로 연결
- 클레이(clay animation): 점토로 만든 대상을 한 프레임씩 움직이며 표현
- 페이퍼(paper animation): 종이에 움직이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한 프레임씩 표현
- 컴퓨터(computer animation): 컴퓨터 이미지와 움직임을 조작하여 표현
- 컷아웃(cut-out animation): 종이를 잘라 표현한 주제를 한 프레임씩 움직이며 표현
- 오브젝트(object animation): 생활 주위의 소품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표현
- 픽셀레이션(pixelation): 피사체로 사람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포착하여 한 프레임씩 표현
- 모래(sand animation): 모래에 그림을 그려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표현
- 그림자(silhouette animation): 두꺼운 검은 종이를 접거나 조명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표현



송윤지 외 2명(학생 작품) 그림 애니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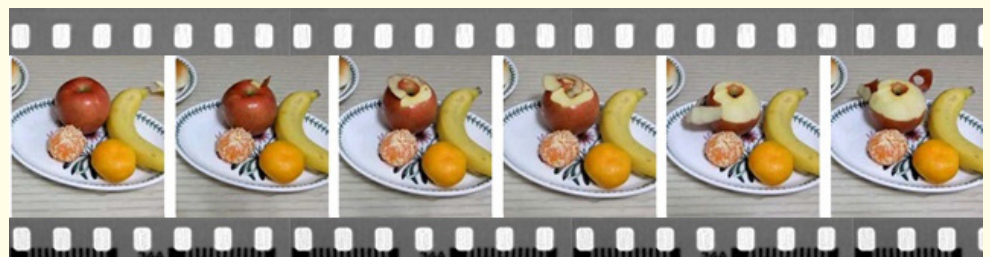
김주형 외 2명(학생 작품) 모델 애니메이션



신원우(학생 작품) 컴퓨터 애니메이션(2016년 작)

더 알아보기 스톱 모션

스톱 모션(Stop-motion animation)은 애니메이션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인형이나 소품 등을 이용해 조금씩 동작에 움직임을 주어 이미지를 한 프레임씩 촬영한 후, 이미지들을 연속해서 영사하여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연속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1초에 24 프레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영화나 TV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다.



김지원(학생 작품) 맛있는 간식(2011) 과일 접시 속의 사과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표현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다. 연속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5초 동안의 사과 껍질 벗기는 장면엔 실제로는 약 200장에 가까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중 1초당 15 프레임이 되도록 사진을 선별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K사(중국/2004~) 시양양(디지털 이미지/2009년 작) 양을 소재로 한 캐릭터이다.

탐구 활동 1

유쾌한 상상으로 연출 사진 찍어 보기

준비물: 카메라



김민석(학생 작품) **미술사**(사진/2016년 작) 원근을 이용한 작품으로 손바닥의 위치가 멀리 있는 학생들에 맞춰지도록 촬영하였다.



최서연의 3인(학생 작품) **장풍**(사진/2016년 작) 날아가는 동작에 맞춰 자세를 잡고 순간을 포착하였다.

탐구 활동 2

가까운 거리에서 주제를 돋보이게 찍어 보기



이선해(학생 작품) **선안장**(사진/2016년 작) 물체를 가깝게 찍어 주제는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고 배경은 흐릿하게 표현하였다.

나도 사진가
사진의 원리를 탐구해 보자.



탐구 활동 3

눈높이를 달리하여 찍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보기



조영우(학생 작품) **등나무 하트**(사진/2016년 작) 아래→위로 찍음(로우 앵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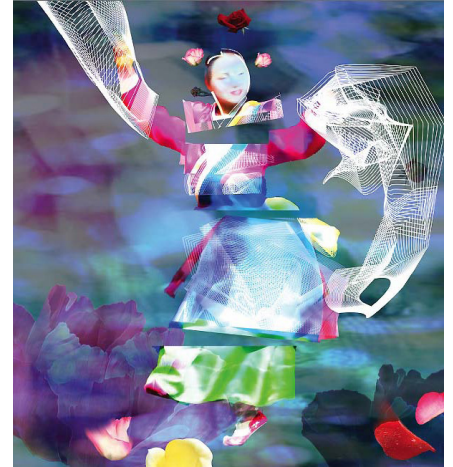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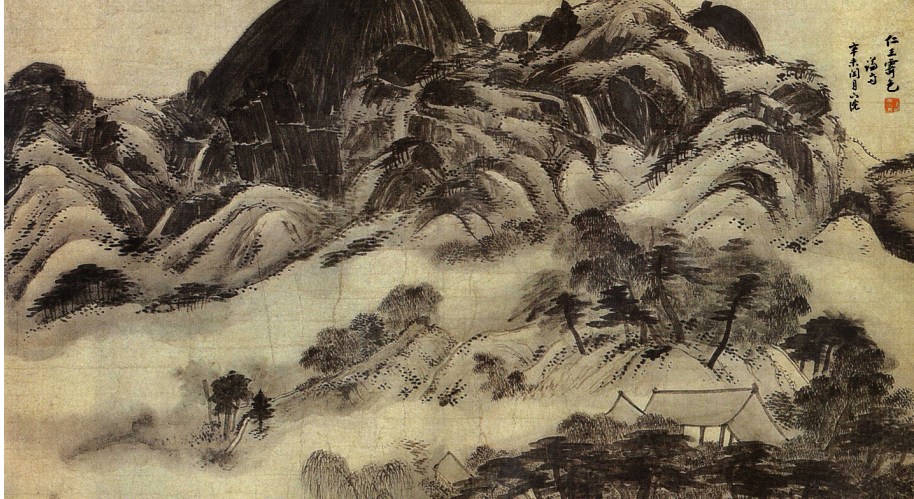
박진하(학생 작품) **물 그림자**(사진/2016년 작) 위→아래를 보고 찍음(하이 앵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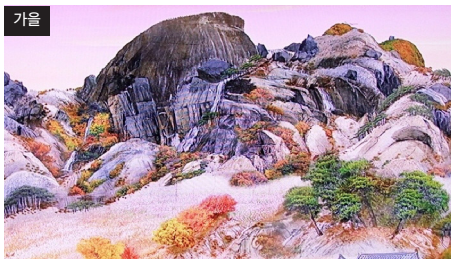
이현(학생 작품) **키보드**(사진/2016년 작) 눈높이와 수평이 되게 찍음(아이레벨).

뉴 미디어 아트

현대 미술의 흐름은 전통적인 재료와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들은 미술과 융합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넓혀 주었고, 현대 과학은 뉴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다. 감상자들은 이제 단순히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읽는 미술'로 시야를 넓히고 있으며, 작품과의 상호 소통으로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박천신(한국/1959~) **소나기**(Shower/컴퓨터/디지털 이미지/2012년 작) 한국 전통 무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디지털 페인팅으로 표현하였다.



이이남(한국/1969~) **인왕제색도**(LED 비디오 설치/2008년 작) LED 화면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산수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산수를 보고 있다면 사시사철 변화하는 산의 풍경과 물소리, 산 속에 위치한 가옥의 조명이 켜지는 장면 등이 그래픽으로 재현된다. 18세기의 산수에 21세기의 감각을 덧붙여 제작한 이 작품은 빛을 통해 고전을 재해석한 뉴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사례이다.



홍성철(한국/1969~) **String_hands_4840**(print on elastic string in a steel frame/100x100x14cm, 2015년 작) 신체 일부나 전체를 사진으로 찍고 이것을 줄(string) 위에 프린트한 다음 여러 겹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다. 사진의 평면 형상을 입체화시킨 것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용어 설명

미디어 아트: 사진, 전화, 영화 등의 발명 이후 이런 신기술들을 활용하는 예술들을 가리키며 매체 예술로 번역된다. 이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탐구하는 예술을 뉴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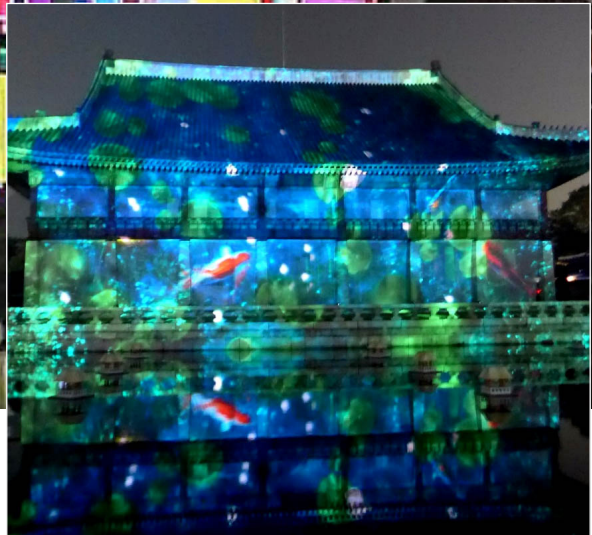
이주용(한국/1958~) **사물과 기억을 기록하다**(홀로그래피 기술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가변 크기/2013년 작) 액자 안에 홀로그램이 각각의 주제와 형상으로 재현되었다. 전통적인 미술 재료와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달라진 현대 미술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체험하고 상호 소통하는 미술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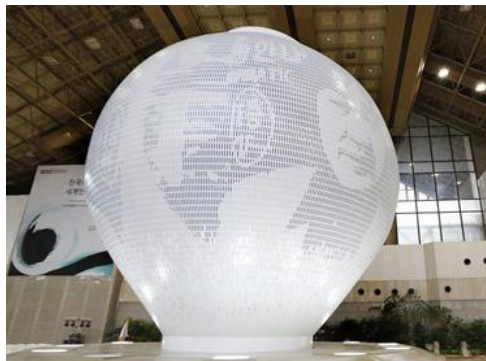
현대의 미술이 뉴 미디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상호 소통에 비중을 두게 되면서 작가들의 표현 방식이 다양해졌다. 작가들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재료와 기법에 변화를 주게 되었고, 캔버스의 개념은 거리의 설치 조형, 미디어 파사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공간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감상자가 미술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 주었고, 야외 혹은 전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 향유, 나누어 누리다(미디어 파사드/가변 크기/2016년 작) 경복궁의 경회루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중 한 장면으로 궁궐 문화유산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경복궁의 600년 역사를 나타내었으며,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나타내고 싶었던 세상을 묘사하였다.



P사(스웨덴) 피아노 계단(시트지, 센서/2009년 작)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가 연주되므로 설치 후 계단 이용자가 늘었다고 한다. 시각적 이미지와 소리, 친환경적인 의도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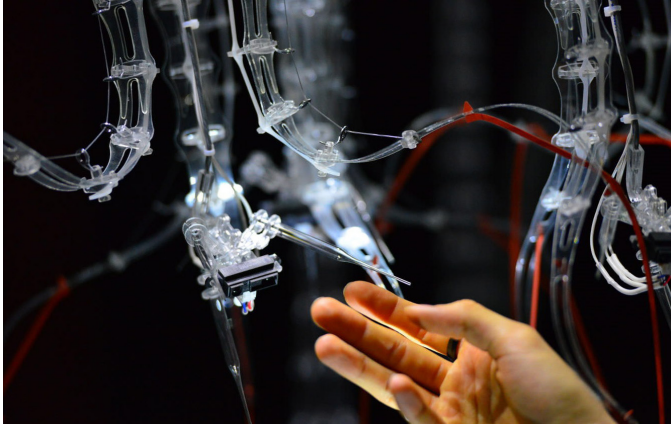
전병삼(한국/1977~) 달항아리(디스크, 디지털 신호/10×10.4m/2016년 작) 물레 위에서 회전하는 달 항아리 형상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설치된 작품이다. 앞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누구나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이 작품에 투사할 수 있다.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다다익선(비디오 모니터/1,003개의 브라운관 TV/1986년 작) 1,003개의 비디오 모니터로 층을 쌓아 만들었고 모니터에는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상영된다.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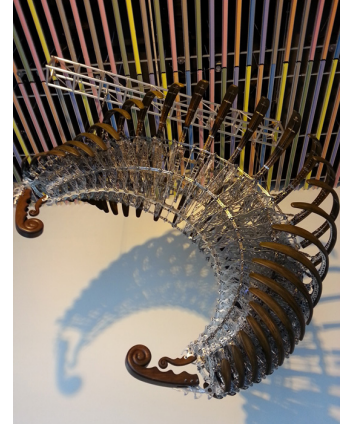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을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한다.



비슬리(beesley, Philip/캐나다/1956~) **착생 식물원**(열가소성 수지, LED, 디지털 센서 외 복합 매체/가변 크기/2013년 작) 관람객이 만지면 조명이 켜지고 와이어가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향기를 분출하는 설치 작품이다.



체르니(Černý, David/체코/1967~) **Metalmorphosis**(스테인리스 스틸/무게 14톤, 높이 7.6m/2014년 작) 연속하여 돌아가며 얼굴 모양이 바뀌는 분수로, 컴퓨터에 의해 두상의 각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회전한다.



최우람(한국/1970~) **달의 감춰진 그림자**(금속/가변 크기/2008년 작) 금속 생명체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이다.

현대 과학과 미술의 만남



어떻게 볼까?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느낄까?



뉴 미디어 아트는 현대 과학을 기반으로 컴퓨터와 테크놀로지, 빛,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매체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을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감상자들은 과거 눈으로만 감상하던 감상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활용하거나 설치 미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 소통하며 작품에 반응하게 되었다. 자, 이제 어떻게 미술을 보고 읽을까?



쇼(Shaw, Jeffrey /호주/1965~2002) **Web of Life**(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02년 작) 컴퓨터 시스템과 관람객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스캐너에 손을 대면 관람객 고유의 손바닥 패턴을 인식하여 화면이 설계되고, 컴퓨터 그래픽, 비디오 이미지, 70.1 채널 서라운드를 경험하며 각자 생명의 웹 주인공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읽을거리 제프리 쇼의 작품 세계

미디어 예술의 개척자로 불리는 제프리 쇼는 1960년대부터 뉴 미디어 및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 실험적 시도를 이끌었다. 그는 작품과 감상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중요히 여겼고, 실제와 가상을 결합시킨 360° 파노라마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 3D로 펼쳐지는 그의 작업 중 대표적인 것은 <읽을 수 있는 도시, 1988>인데 이 작품은 스크린 앞에 선 관람객이 자전거를 타고 15km에 달하는 암스테르담 시내를 실시간으로 질주하며 대상을 만지는 가상 체험까지 할 수 있다. 관객이 밟는 페달의 회전수에 따라 자전거의 속도가 결정되고 핸들이 회전도 된다. 2012년에는 중국의 불교 문화재인 '둔황 석굴'을 실제의 느낌처럼 체험할 수 있는 설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점검해 보기

- 좋은 사진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가?
-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기법을 알고 스톱 모션으로 제작할 수 있는가?
-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미술의 변화를 이해하였는가?
- 뉴 미디어 아트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말할 수 있는가?

14 전통 미술의 향기

학습 목표 ·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연계 미술 ①-12

생각 열기

전통 미술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을까?



우리의 정서와 미의식을 간직한 전통 회화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로 분류되며, 작가의 신분 따라 문인화, 민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소재에 따라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어해화, 영모화, 기명절지화, 풍속화, 초충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 회화는 일반적으로 한지와 붓, 먹을 기초로 표현하는데, 내면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전통 회화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표현 방법의 특징을 탐색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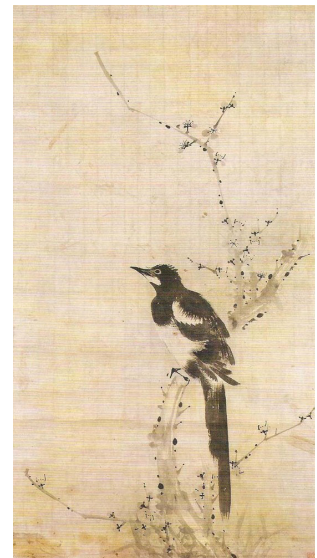


김기창(한국/1913~2001)
청록산수(종이에 수묵 담채
/600×580cm/1964년 작)

배렴(한국/1911~1968) 비 온 후(종이에 수묵/176×92.5cm/1960년 작)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비 온 후 산의 정감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수묵화

수묵화는 한지 위에 먹물의 짙고 옅음인 농담을 살려 그린 그림으로, 그리는 의미와 선,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묵화에서 선의 짙고 옅은 강약은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백은 여운을 남기며 무한한 깊이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묵화는 한지에 먹물이 스며들며 생기는 먹색의 짙고 옅음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짙은 먹인 농묵과 중간 먹인 중묵, 그리고 옅은 담묵은 멀고 가까운 원근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모필을 이용하여 한지 위에 다양한 기법으로 간결하며 기운생동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수묵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른 표현 재료와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조속(조선/1595~1668)
고매서작(종이에 수묵
/100×55.5cm/조선 중기 작)

수묵 담채화

수묵 담채화는 먹물로 그린 후 채색한 그림을 말하며, 먹선과 색의 조화로 맑고 담백한 표현이 가능하다.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에는, 먼저 먹선으로 그린 후 색을 입히는 것과 색을 먼저 칠한 후에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 ① 장우성(한국/1912~2005) **비상**(종이에 수묵 담채/42×69cm/1976년 작) 기러기 두 마리가 달빛을 배경으로 노니는 모습을 담백하게 표현하여 깨끗한 심성이 전달되는 그림이다.
- ② 박노수(한국/1927~2013) **달과 소년**(종이에 수묵 담채/166×135cm/1987년 작) 전통 수묵화에 현대 감각을 더하여 개성 있는 화풍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 ③ 박래현(한국/1920~1976) **노점**(종이에 채색/266×212cm/1956년 작) 감각적 필치로 섬세하게 표현한 노점 여인들의 모습에서 담백한 수묵 담채화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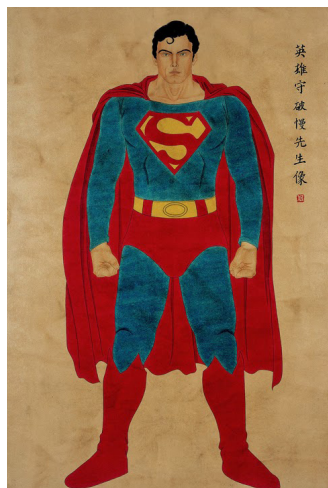
②

채색화

우리나라 전통 회화에서 채색화란 비단이나 두꺼운 한지 위에 아교 물을 여러 번 바르고 채색 물감을 여러 번 칠하여 작업하는 그림을 말한다. 전통 채색화는 장식적 효과가 있어 삼국 시대 고구려 고분 벽화로부터 시작되어 고려 시대의 불화, 조선 시대의 초상화, 민화 등에 사용되었다.



①



②



③



④

- ① 천경자(한국/1924~2015) **고 孤**(종이에 분채/38.5×25.3cm/1974년 작) 대담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개성 있는 화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 ② 손동현(한국/1978~) **영웅 수파만 선생님**(종이에 수묵 채색/190×130cm/2007년 작) 동양화의 전통적인 구도와 기법에 현대 대중문화의 소재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그림이다.
- ③ 이왈중(한국/1945~) **제주 생활의 중도**(종이에 혼합 재료/205×291cm/2008년 작) 밝고 경쾌한 색감을 사용하여 제주의 여유로운 일상의 풍경들을 정답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김혜연(한국/1976~) **머리하는 여자**(종이에 채색/108×84cm/2006년 작) 머리를 다듬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검은 색 바탕에 선명한 형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있다.

문인화

문인화는 조선 시대 선비들이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수묵화나 수묵 담채화로 시, 서, 화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였다. 문인 화가들은 주로 사계절을 상징하는 사군자를 즐겨 그렸다. 사군자란 봄을 알리는 매화, 여름의 난초, 가을의 국화,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진 대나무를 그린 그림으로, 식물을 덕망이 높은 군자에 비유하여 그 기품을 닮으려 했던 마음이 담겨 있다.

사군자(四君子)

- ❶ 김홍도(조선/1745~1806?) 매화(종이에 수묵/80x51cm/조선 후기)
- ❷ 김정희(조선/1786~1856) 난초(종이에 수묵/27 x 22.9 cm/제작 연도?)
- ❸ 강세황(조선/1713 ~ 1791) 국화(종이에 수묵/68.9 x 48.3cm/18세기)
- ❹ 이정(조선/1554~1626) 대나무(풍죽, 종이에 수묵/71.5 x 127.5cm/1611년 작)



❶ 매화



❷ 난초



❸ 국화



❹ 대나무

민화

민화는 무병장수나 다산 등을 기원하며 악한 기운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선과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성이 있으며, 전문 화가부터 무명 화가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그렸다. 민화의 종류에는 모란도, 책가도, 문자도 등이 있다.



작가 미상(한국) 문자도(한지에 채색/73x30cm/조선 시대)



까치와 호랑이(종이에 수묵 담채/72x59.4cm/조선 시대)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며 다양한 채색으로 조선 후기 우리 겨레의 심성을 잘 표현하였다. 소나무와 같이 등장하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이며,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서낭신이 까치를 시켜 호랑이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탐구 활동 1 책가도 소재와 상징 찾기

책가도의 소재	분재 소나무 연꽃 복숭아, 수박, 참외
	알밤 장미 국화 감 대추
	모란 가지, 고추, 죽순, 석류 배 포도
상징	충절을 지키는 선비 절개와 지조 청춘을 오래 간직함
	부귀 군자 은일자(隱逸者) 남성 여성 장수(長壽), 복(福)
	신의(信義) 일가친척의 단결 모성애 건강한 자손 자손의 번창

책거리 그림(冊架圖) 책가도 가리개 병풍(비단에 채색/211.5x128cm/19세기 작) 책거리 그림은 민간에서 무명 화가가 책과 기물들을 함께 그려서 가정에 걸어 두었던 민화의 한 종류로, 서양의 정물화와 비슷하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출세의 길이었던 조선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그림이다.

전통 미술의 소재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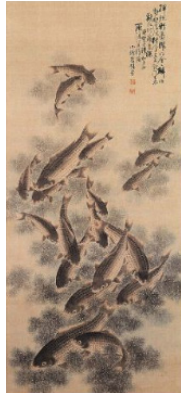
전통 미술은 작품의 소재에 따라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화훼화, 어해화, 기명절지화, 풍속화, 초충도, 영모화 등으로 분류한다. 산수화는 자연을 그대로 옮겨 그린 실경 산수화,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 관념 산수화, 자연의 진면목을 그린 진경 산수화로 나눌 수 있다. 진경 산수화는 조선 후기 유행한 우리나라 산천을 직접 관찰하고 그에 어울리는 필법을 이용하여 그린 산수화이며 한국적인 화풍을 보여 준다.



⑤ 산수화



① 화훼화



② 어해화



③ 풍속화



④ 화조화



⑥ 초충도



⑦ 영모화



⑧ 기명절지화



⑨ 인물화

① 신명연(조선/1808~1886) 백합(비단에 채색/30.5×19cm/제작 연도?)

② 조석진(한국/1853~1920) 어해화(비단에 채색/141×66cm/1913년 작)

③ 조영석(조선/1686~1761) 말 징박기(종이에 수묵 담채/36.7×25.1cm/18세기 작) 말굽에 징을 박고 있는 장면으로 말과 인물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영석은 조선 후기 문인 화가이며 조선 시대 풍속화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④ 정선(조선/1676~1759) 백로도첩-갈대와 수련과 쇠백로(쪽물 들인 종이에 수묵 담채/65.2×41cm/1729년 작)

⑤ 김동수(한국/1935~2011) 매월대폭(종이에 수묵 담채/79.5×64cm/1995년 작)

⑥ 신사임당(조선/1504~1551) 초충도(종이에 수묵 담채/34×28.3cm/16세기 작)

⑦ 김두량(조선/1696~1763) 흑견도(종이에 수묵/23.1×26.5cm/제작 연도 미상)

⑧ 이도영(한국/1884~1933) 기명절지화(종이에 채색/33×48cm/1926년 작)

⑨ 신윤복(조선/1758~?) 미인도(비단에 채색, 114×45.5cm/18세기 작) 조선 시대 미인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는다.

더 알아보기 남종화와 북종화

남종화(南宗畵)는 학문이 깊은 사대부가 수묵과 담채를 사용하여 그린 온화한 그림이며, 조선 시대 선비 화가들은 물론 화원들도 남종화를 그렸다. 대표적인 남종 문인 화가로는 중국의 왕유, 한국의 이인상, 강세황, 심사정 등이 있다. 북종화는 채색 위주의 그림으로 전문 화가 중심으로 선묘를 사용하여 그린 장식적인 그림을 말한다. 중국의 이사훈이 대표적인 화가이다.

✓ 점검해 보기

-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전통 회화의 속에 담긴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15 아름다운 문자 예술

학습 목표 · 서예의 변천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서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다양한 전각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얼마나 다양한 서체가 있을까?

한글 서체

한글은 하늘(·), 땅(—), 사람(1)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음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글자이다. 한글 서체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생성된 판본체와 궁중에서 체계화되고 여성 사회에서 발전시킨 궁체가 대표적이다.

탐구 활동 1 한글 서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판본체

원필체



훈민정음 해례본(목판본/29.5x20.3cm 부분/1446년 작)

방필체



월인천강지곡(금속활자(한글활자 갑인자 병용)/31x20.7cm 부분/조선 1448년 작)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 등에 쓴 글씨체로, 판에 새긴 글씨와 비슷하게 생겨서 판본체라 한다. 판본체에는 원필체와 방필체가 있다.

궁체

정자체



남계연담(필사본/27.8x20.3cm 부분/조선 후기)

반흘림체



낙성비룡(조선 시대)

진흘림체



김정희(조선/1786~1856) 예안 이씨에게 쓴 편지

왕비를 보좌하는 상궁 중에 문서나 편지를 전담하는 서사 상궁이 있었다. 궁체는 주로 궁궐의 여성들에 의해 전수되어 온 서체로 정자체, 반흘림체, 진흘림체가 있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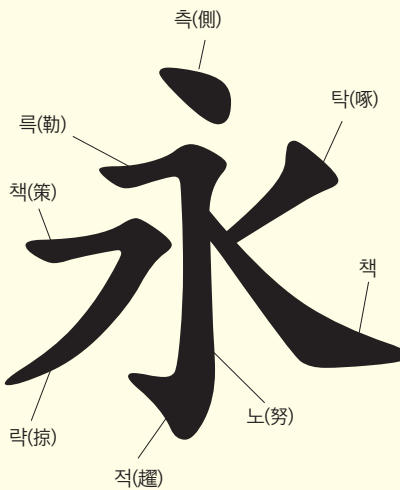
시·서·화 삼절(三絶)

삼절의 '절(絶)'은 뛰어나다는 뜻으로, 시(문장)·서(글씨)·화(그림) 세 부분에 능하거나 그런 사람을 일컬어 삼절 또는 시·서·화 삼절이라 한다. 표현하고 싶은 바를 문장으로 읊으면 시가 되고, 글씨로 쓰면 서가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화가 된다. 시·서·화 삼절은 서로 다른 표현 방법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구성된 독특한 표현 양식이다.



소식(蘇軾/북송/1036~1101) 고목과석도(중이에 수목/세로23.4cm/전 송)

영자팔법



'영자팔법'은 서예를 수련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길 영(永)'자에는 해서체를 쓰는 데 필요한 8가지 필법이 모두 담겨 있어 수련의 기본으로 삼았다.

한문 서체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켰다. 한문의 서체는 전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전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예서, 예서를 변화시켜 읽고 쓰기에 편리한 서체로 만든 것이 해서이다. 해서를 쉽고 빠르게 쓰기 위해서 행서가 발달하였다. 초서는 어떤 글씨체를 간략하게 흘려서 쓴 모두를 가리킨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p>나야대각석(탁본/기원전 219년 작)</p>	<p>조전비(탁본/172x83cm의 부분/185년 작)</p>	<p>김정희(조선/1786~1856) 목 소거사자찬(종이에 먹/32.7x136.4cm/19세기 작)</p>	<p>왕희지(동진/303~365) 난정서 풍승소본(종이에 먹/69.9x24.5cm 부분/353년 작)</p>	<p>손과정(당/646~691) 서보(종이에 먹/687년 작)</p>

더 알아보기 광개토왕호우의 서체

광개토왕호우의 밑바닥에는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 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라는 명문이 쓰여 있다. 이 명문은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예서체로 웅건한 고구려 특유의 서체를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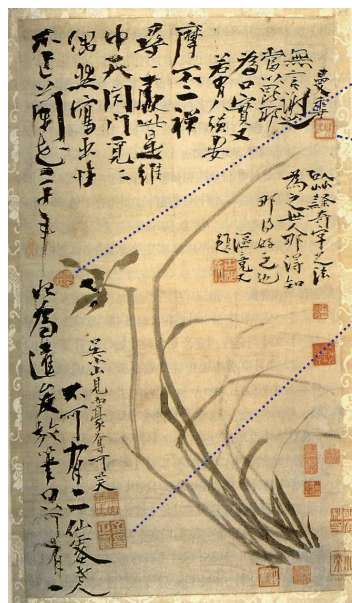
광개토왕호우(廣開土王壺杆)와 탁본(청동/높이 23.9cm/고구려 장수왕 3년(415년) 작)

낙관과 전각

낙관은 ‘낙성관지(落成款識)’의 준말이다. 낙성은 어떤 작품을 제작한 일시와 장소 및 작가의 성명 등을 기입하는 것을 말하고, 관지는 글씨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 낙관은 단순한 서명의 의미를 넘어 장식 효과와 구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장의 크기, 서체, 찍히는 위치 등이 화면에 어울려야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작품에 찍혀 있는 전각을 모두 낙관이라 부르고 있다. 전각의 종류는 기법에 따라 백문인과 주문인, 내용에 따라 성명인, 아호인, 사구인, 초형인, 용도에 따라 관인, 두인, 수장인, 장서인, 봉니인, 감상인 등으로 나뉜다.

탐구 활동 2

전각의 기법과 내용, 용도에 적합한 명칭 알아보기



김정희(秋史/조선/1786~1856) 묵란도(부작란도) (종이에 수묵/56x30.6cm/19세기 중엽)



기법: ()으로 글씨가 하얀 백문인이다.
용도: '묵장' 문장의 첫 부분에 찍은 두인이다.



기법: 양각으로 글씨가 붉은 ()이다.
내용: '추사'로 김정희의 호를 새긴 ()이다.



기법: ()으로 글씨가 하얀 ()이다.
내용: '김정희인'이라 이름을 새긴 ()이다.



기법:
용도:

▶ 점검해 보기

- 서예의 변천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서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전각의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가?

16 전통 공예의미를 찾아서

학습 목표 ·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 전통 공예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연계 미술 ①-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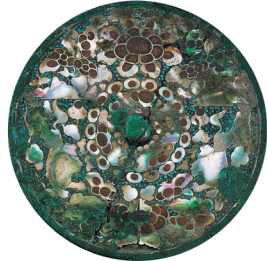
생각 열기

전통 공예품의 형태를 만들거나 장식에 사용된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예는 주로 일상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고려하여 제작된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수공예품은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담겨 있어 더 큰 가치가 있다. 공예의 종류에는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 공예, 도자 공예, 섬유 공예, 한지 공예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재료와 기법에 따라 공예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팔각 화각함(나무에 쇠붙이/22.2×31.4cm)
소의 뿔을 얇게 펴서 채색과 그림을 그려 목기 위에 붙여 장식한 것으로, 십장생, 풍속도, 신선도 등의 무늬를 넣는다.



나전 화문 동경(청동, 나전/지름 18.6, 두께 0.6cm/통일 신라)
전복 껍데기를 이용한 작품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재료임을 알 수 있다.



조각보(비단/65×65cm/1950년대 작)
물건을 싸고 다닐 수 있도록 손바느질로 만든 보자기로, 쓰고 남은 조각천을 버리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아름답고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제작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은제 칠보 귀걸이
(칠보/길이 8cm/조선 시대 작)

종이의 다양한 변신, 한지 공예

한지 공예는 종이를 이용하여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한지 공예에는 종이를 꼬아 엮어 만드는 지승 공예, 뼈대를 만들어 안팎으로 한지를 여러 겹 발라 만드는 지장 공예, 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후 틀에 붓거나 덧붙여 만드는 지호 공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지장 공예 실함(한지/조선 시대 작(추정))



지승 공예 항아리(한지/높이15cm, 입지름14cm, 바닥 지름10cm/조선 시대)



지호 공예 각시탈(한지/32×29.7cm/광복 이후 작)

나무의 결과 향이 담긴 목공예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지는 목공예는 색과 무늬가 아름답고, 금속이나 돌보다 다루기가 쉬워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다.



점이식 임금 의자(나무에 옷칠/91×56.7cm/조선 시대) 좌식의 생활문화를 가진 조선 시대 사회에서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이다.



주칠 궁궐판(소나무, 어피, 자개, 상아, 대모, 옷칠/65×41cm/19세기 작) 칠공예의 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로 만든 소반이다.



사방탁자(나무/41.5×43×167cm/연대 미상) 물건을 올려두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못을 사용하지 않은 짜맞춤 기법으로 이음새를 제작하였다.

◆ 나전 칠기

옷칠은 옷나무의 액을 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산품인 조개껍데기(자개)를 옷칠과 함께 붙여 장식한 나전 칠기는 예로부터 해외에 많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자개는 조개껍데기를 말해요.

! 생각해 보기

옛날에는 못을 박지 않고 나무를 어떻게 이어 붙였을까?

천을 아름답게, 염색 공예

천연 염색 공예는 천에 염료로 다양한 무늬나 색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천연 염색은 화학 염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염료를 만들어 물들이는 것으로 다양한 색과 친환경적인 재료로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다양한 염색 방법

- 침염-홀치기염, 판염
- 날염
- 납방염-파라핀염
- 전사염

◆ 천연 염색에 사용되는 재료

- 파랑: 쪽, 누리장나무 열매
- 분홍, 빨강: 소목, 홍화, 자초, 꼭두서니
- 노랑, 주황: 목서초, 강황, 황금, 치자
- 갈색: 황토, 풋감
- 회색, 검정: 오배자, 호두껍질, 먹물



김가형(학생 작품) **염색지로 만든 에코백**(면가방, 염색 색종이/30×54cm/2016년 작) 다림질로 녹여 무늬를 만드는 염색지를 사용하여 쉽게 가방의 무늬를 제작하였다.



김다연(학생 작품) **홀치기염**(천, 염료/48×46cm/2016년 작) 실로 묶인 부분이 염색되지 않는 홀치기염 기법을 사용한 보자기로, 염료의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다.

수준 높은 우리나라의 금속 공예

금속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강도가 세고 광택이 아름다워 금과 같은 것은 장식품으로 많이 제작되었고, 구리나 철 등은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신라의 금속 공예품들은 매우 섬세하여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보여준다.



항남대총 북분 금관(높이 27.3cm, 지름 17cm /신라) 관테에 출(出)자와 사슴뿔 모양 장식을 세우고, 아래로 굽은 고리에 6개의 드리개 장식을 매달아 내려뜨린 뒤 푸른 곡옥과 달개를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한 금관이다.

!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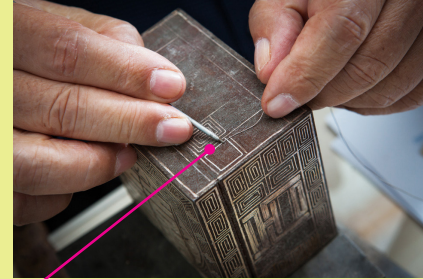
금속 공예의 입사 기법과 유사한 도자 공예 기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청동 은입사포류수금문 정병(청동, 은/높이 37.5cm/고려 시대 작) 사찰에서 사용된 의례용품으로, 청동 바탕에 은 입사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용어 설명

입사 기법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6호 최교준 입사장

금속 공예의 일종으로 금속 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金線) 또는 은선(銀線)을 홈에 끼워 장식하는 기법이다. 이전에는 '실드리다'라고 하였으며, 기원전 1, 2세기경의 낙랑 유물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신라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로 보아 신라 시대에는 매우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칠보 공예

유리질을 녹여 금속 등의 재료에 붙여 무늬를 만드는 공예



은 칠보 노리개 장식(2.6cm/조선 시대 작)

금속 공예 기법에는 판금, 주금, 단금, 조금, 용접 등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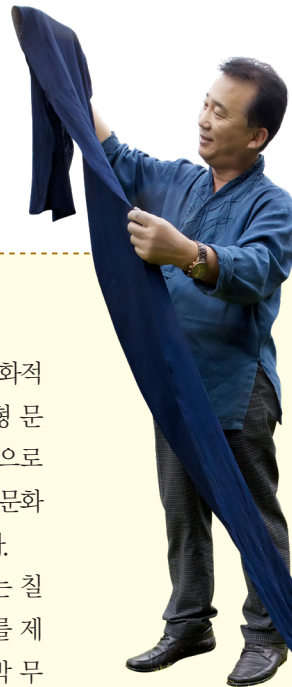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국가 무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는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 형체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 문화재는 형체가 없으므로 대부분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 무형 문화재는 전승 단절 우려가 있는 경우,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의 안정적인 전승과 전승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천연 염색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염색장, 전통 목재에 옷칠을 하는 칠장, 전통 목조 기술을 가진 대목장, 전복껍데기를 이용하여 무늬를 제작하는 나전장, 쇠뿔로 가구의 무늬를 만드는 화각장, 섬유에 금박 무늬를 만드는 금박장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에 속한다. 그 외에도 유기장, 탕전장, 단청장, 불화장, 자수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 무형 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한국/1959~)

흙으로 빚은 아름다움, 도자 공예

도자 공예는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불에 구워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흙의 종류와 무늬 제작 방법, 굽는 방법, 유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도자기는 고려청자를 비롯해서 뛰어난 기술과 특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고려 시대의 청자,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 등은 우리나라 도자기 제작 기술의 우수함과 우리 조상들의 심미관을 보여 준다.

! 생각해 보기

1. 청자와 백자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자.
2. 청자와 백자의 색깔은 왜 다른지 재료를 알아보자.
3. 두 작품의 장식 기법을 비교해 보자.
4. 각각 만들어진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비교해 보자.
5. 청자와 백자에 담긴 조상들의 심미관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고려 시대 청자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높이42.1cm, 입지름 6.1cm, 밑지름16.5cm/고려 시대 작)

조선 시대 백자



백자 청화 국화문 병(높이 27.2cm, 입지름 5.2cm, 밑지름 12.3cm/19세기 작)

◆ 상감 기법

제작 과정

- ① 준비하기
- ② 무늬 파기
- ③ 다른 색상의 흙 밀어 넣기
- ④ 표면의 흙 긁어내기
- ⑤ 무늬 완성



상감 유광열 명장이 상감 기법 중 무늬를 파고 있는 모습이다.



박소희(학생 작품) 물결 무늬 도자기(백자 토, 유광재유/12×12×5.5cm/2016년 작)

탐구 활동

도자기 이름 붙이기

도자기 이름 붙이는 방법

대분류[청자, 백자, 분청]	+	문양 제작 기법	+	문양 이름	+	용도나 형태
예 분청사기	+	박지	+	모란당초문	+	편병



도자기의 종류, 기법, 무늬, 그릇 형태 등을 조사해 보고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도자기 이름을 완성해 보자.

- 도자기 종류 청자 백자 분청사기
- 문양 제작 기법 귀알 덩병 철화 상감
- 무늬 모양 구름 당초 모란 포도
- 그릇의 형태 매병 편병 향아리 장군



분청사기 박지모란당초문 편병(높이21cm, 입지름 6cm, 바닥 지름 7.5cm/15세기 작)

✔ 점검해 보기

- 전통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 전통 공예품 속에 담긴 선조의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가?

17 인간을 위한 디자인

학습 목표 • 디자인의 정의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다.
•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연계 미술 ①-15

생각 열기

미래 사회의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오늘날 디자인은 시대적 의미를 담고 새로운 형태와 쓰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사람들은 디자인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아름다움과 기능을 함께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 시대의 문화를 만들고 미래 사회가 추구할 가치를 찾는다.

히토시 아베(阿部仁史/일본/1962~) **메이크 잇 라이트 프로젝트(Make It Right 주택 건축/미국 뉴올리언즈/2011년 작)** 2005년에 태풍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즈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비용이 덜 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주택 단지가 형성되었는데, 다시 홍수나 태풍이 와도 피해를 덜 받는 주택들이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이루는 창의적 조형 활동이며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고 실체이다.

◆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① 목적에 적합한 디자인
- ② 기능에 맞는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
- ③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디자인
- ④ 독창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

더 알아보기 디자인의 의미 변천

장식으로서의 디자인



드리스콜(Driscoll, Clara/미국/1861~1944) T사 잠자리 조명(유리, 브론즈, /1900년 작)

기능주의 디자인



바젠펠드(Wagenfeld, Wilhelm/독일/1900~1990) 바우하우스 램프(니켈 도금 금속, 유리/1924년 작)

상업주의 디자인



클린트(Klint, Kaare/덴마크/1888~1954) 클린트 종이 조명(플라스틱 종이/35cm/1942~1944년 작)

경영으로서의 디자인



새퍼(Sapper, Richard/독일 →이탈리아/1932~2015) 티지오 책상 조명(ABS 플라스틱, 알루미늄/10.8 × 76.2 × 76.2 cm/1971년 작)

문화로서의 디자인



딕슨(Dickson, Tom/튀니지 →영국/1959~) E사 잭 조명(Jack Light/플라스틱/52cm x 58cm x 58cm/1997년 작)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 광고 디자인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O사(미국) 에너지 절약 버스 정거장 광고 디자인(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08년 작)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광고판에 불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알리는 디자인이다.

◆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영화·컴퓨터 게임 등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공공 행사, 광고, 애니메이션, 동화책에 활용되고 있다.



O사(한국) 선물 공룡 디보(애니메이션/가변 크기/2005년 작) 상상의 공룡 디보와 그의 친구들을 인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만들어 애니메이션, 아동극, 키즈 카페에 적용하고 있다.

◆ 포스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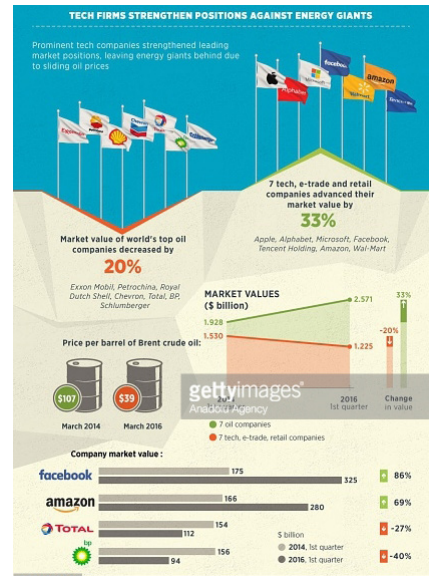
시각적 요소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나 행사를 알리거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다.



조영제(한국/1935~) 환경 오염 포스터(옵셋 인쇄/72.8x103cm/1978년 작) 공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스터 디자인이다.

◆ 인포그래픽(Infographic)

정보, 데이터,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A사(터키) 터키 기술 회사와 주유 회사의 시장 가치에 관한 인포그래픽(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16년 작) 시장 가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활용하여 안내한다.

◆ 일러스트레이션

제3자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 암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으로 간략하게 일러스트라고 한다.



마리스칼(Mariscal, Javier/스페인/1950~) 잡지 뉴요커 표지 일러스트레이션(2014년 작) 간결한 선과 색을 사용하여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탐구 활동 1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디자인 알아보기

기업이나 공공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또는 단일화하여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디자인 활동을 알아보자.



UNICEF 로고(디지털 이미지/1953년 작)

인간 중심 디자인

“디자인은 지적 또는 물질적 유희가 아니라, 문명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삶의 일부를 의미한다.” -발터 그로피우스

디자인은 사람들의 요구와 꿈, 행동을 파악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제품, 서비스, 환경, 상호 작용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된다.

◆ 감성 디자인

디자인 대상의 효율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감흥까지 불러 일으키는 디자인이다. 심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면서 사용성도 좋게 하여 논리와 이성을 넘어 본능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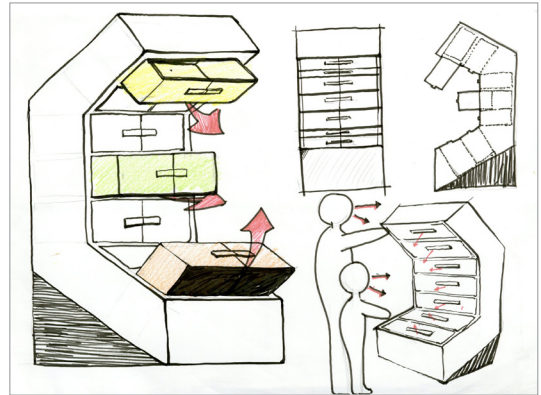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 원칙 >

- ① 공평한 사용, ② 사용의 융통성,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 쉬운 정보의 이용, ⑤ 사고의 포용, ⑥ 신체적 부담의 경감, ⑦ 사용을 위한 적당한 공간 확보



F사(미국) Deep Tea Diver Infuser(실리콘 고무/5.6x13x5.6cm/ 2012년 작) 찻잔을 심해로 비유하고 귀여운 잠수부가 차를 우려는 소임을 다하는 상황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다. 감성 디자인은 기능도 충족하며 그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다.



김태훈, 김성환(학생 작품) 유니버설 서랍장(종이에 색연필, 사인 펜/29.7x42cm/2016년 작) 다리를 구부려 앉는 신체의 피로를 줄이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이다. 키가 큰 성인과 키가 작은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E사(미국) 브래들리 타임 피스(티타늄 /4x4x1.15cm/ 2012년작)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져서 아는 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이끈 디자인으로 2016년 red dot상과 iF상을 수상하였다.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서 시작했으나 디자인 결과는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추었다.

두파이어 Dupire, Diane/ 미국/1990~) 엘리칸(18x85cm/2012년 작) 물뿌리개에 대한 디자인으로 코끼리가 물을 뿜는 것에서 형태를 고안하여 바퀴를 장착함으로써 이동에 편리를 꾀한 디자인으로 2012 reddot을 수상하였다.



◆ 서비스 디자인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실제화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체계적 디자인을 이루는 것이다. 맥락을 중시하는 집중적 디자인 리서치, 다양한 이해와 관계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개발, 특화된 가시화 방법, 빠른 반복 실행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함으로써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이 지닌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I사(미국) PillPack(종이, 약통 등, 패키지/2014년 작) 날짜와 시간을 개인 약병투에 기재하고 투약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지시켜 약 처방의 방법을 변화시켰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산업 기술의 발달은 사람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자연환경도 파괴하였다. 인간의 편의를 꾀하는 노력이 오히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P사(스웨덴) 피푸백(자기 분해 바이오 플라스틱/26x24cm/2006년 작) 제3국 및 재난 현장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1회용 휴대용 변기 디자인이다.

◆ 에코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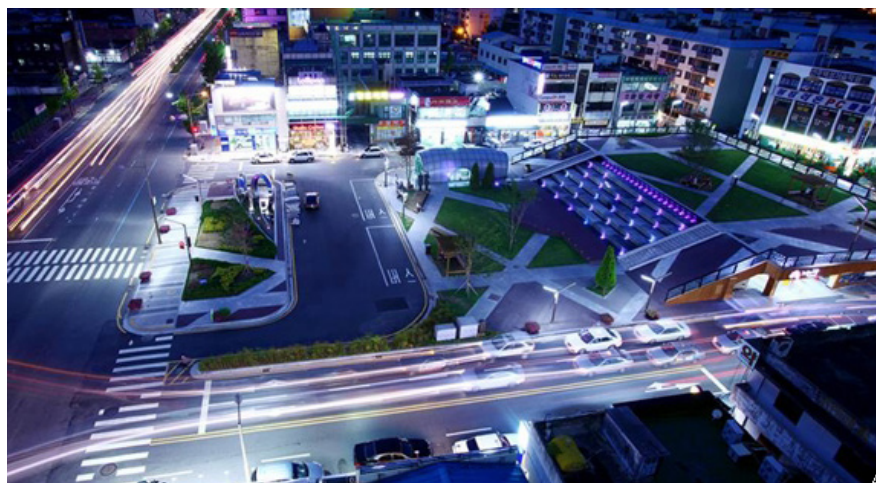
생태 환경의 피해를 줄이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기능과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친화 디자인이다. 생산되고 폐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다. 환경친화적 사용을 꾀하고, 폐기하기 쉽거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다.



J사(말레이시아) 밀레니엄 대나무 학교 프로젝트(대나무 건축, 필리핀/2010년 작) 필리핀의 환경을 고려하여 대나무를 주요 목재로 활용하여 채광과 통풍이 잘되고,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A급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학교이면서 긴급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 공공 디자인

공공성을 지닌 공간과 시설을 보다 합리적이고 심미적으로 형성하는 디자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과 가로 환경 시설물, 안내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을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시각적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생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주시청(한국) 전주시 아트폴리스 덕진광장(한국, 전주/2011년 작) 무질서한 노점상과 난잡한 주차로 불편을 주던 공간이 녹색 잔디와 조명, 공연장으로 변신하였다.

탐구 활동 2 지속 가능한 디자인 탐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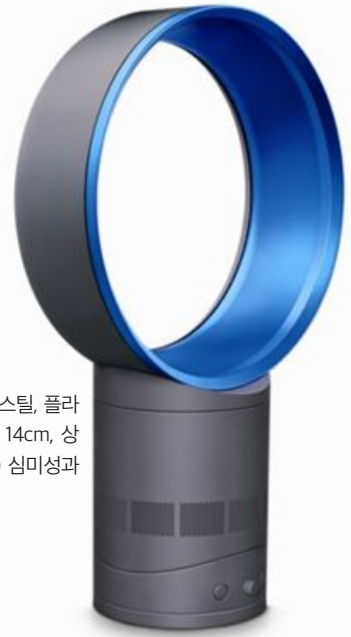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자.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자인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과 새로운 소재 및 가공 기술의 개발, 현대의 디지털 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 온 디자인과 그로 인한 우리의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자.



B사(영국) 모리스미니(1959년작) 대량 생산은 자동차를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시켰다.



D사(영국) 날개 없는 선풍기(스틸, 플라스틱/높이 50cm, 하단 원형 14cm, 상단 원형 25.4cm/2009년 작) 심미성과 안전성을 갖춘 디자인이다.



아라드(Arad, Ron/이스라엘/1951~) 북원(플라스틱/2004년 작) 플라스틱 소재로 된 판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조립하여 나만의 책꽂이를 만들 수 있다.



A사(미국) 아이맥(1998년 작) 단조로운 색상에 상자 모양인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알록달록한 반투명의 색감으로 만들어 개성적인 감각과 감성을 담아내었다.

더 알아보기 미래의 디자인

미래에는 첨단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파빌리온(이탈리아 밀라노/2015년 작) 공기 중 오염 물질이 콘크리트 벽에 흡수되어 무해한 염류로 바뀐 뒤 빗물로 씻겨 내려간다. 도시의 공기 정화를 책임지는 미래 시대의 건축이다.





L사(스웨덴) 자석식 벽걸이 전화기(model 301/1891년 작)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초기 전화기의 모습



블롬베르크(Blomberg, Hugo/1820~1871/스웨덴) 에리코 폰(1956년 작)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일체형 유선 전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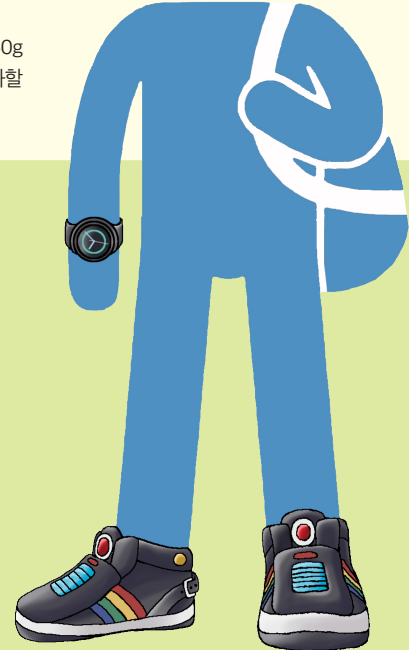
M사(미국) 무선호출기 디지털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형 휴대용 수신기



A사(미국) 아이폰7(2016년 작)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함.



M사(미국) 마이크로텍(1989년 작) 무게 50g으로 작고 가벼워 이동하며 편리하게 전화할 수 있는 휴대 전화 등장



두 손이 자유로워진 입는 **컴퓨터-웨어러블 기기** 등장



S사(한국) 갤럭시 기어 S@ 시계처럼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G사(미국) 말하는 신발 센서가 탑재된 신발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M사(미국) 홀로 렌즈 실제 사물 위에 가상의 이미지를 더하는 증강 현실을 실현



점검해 보기

- 디자인의 정의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디자인이 고려해야 할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미래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가?

미래의 학교를 디자인해 보자!

사회, 문화, 환경, 과학 기술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학교 모습을 상상하여 디자인해 보자.

[프로젝트 활동 목표]

-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추측한다.
- 미래의 학교 디자인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프로젝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프로젝트 활동, 이렇게 해요]

준비물: 필기 도구, 사진, 컴퓨터, 채색 재료, 종이

1 미래의 학교 디자인 상상하기

2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기

3 자료 수집과 정리

4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5 활동 정리와 평가



화상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



스크린 운동장에서의 체육 시간



엘레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가는 소풍



체온 조절 센서가 달린 교복



날아다니는 보드를 타고 등교



종이책처럼 접히는 전자 교과서

프로젝트 활동 평가하기

-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디자인을 표현하였는가?
- 프로젝트 활동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더 알아보기 디자인의 역사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개발, 시대에 펼쳐진 사고방식과 문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의 흐름과 주요 디자인 운동을 살펴보자.

1 미술 공예 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 1850~1914

기계 생산에 반대하며 수공예 부활을 주장한 최초의 디자인 운동



모리스(Morris, William/영국/1834~1896)
넷 실링의 천장 벽지(1895년 작)

2 아르 누보(Art Nouveau) 1890~1910

자연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장식 중심의 양식



기마르(Guimard, Hector/프랑스/1867~1942)
파리 아베세 역(1900년 작)

3 데 스틸(De Stijl) 1917~1931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양식



리트펠트(Rietveld, Gerrit Thomas /네덜란드 /1888~1964) 슈뢰더 하우스(1923~1924년 작)

4 바우하우스(Bauhaus) 1919~1933

대량 생산에 적합한 예술인 양성과 건축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디자인 학교



그로피우스(Gropius, Walter/독일→미국/ 1883~1969) 바우하우스(독일/1926년 작)

5 오르가닉 디자인(Organic Design) 1930~1960

부드러운 곡선과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



임스(Eames, Charles & Ray /미국/1907~1978, 1912~1988) 라세즈 의자(1948년 작)

6 팝 아트(Pop Art) 1958~1972

친근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추구



블레이크와 호위스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앨범 재킷

7 미니멀리즘(Minimalism) 1967~1978

극도의 간결함으로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한 양식



람스(Rams, Dieter/독일/1932~) Phonosuper SK4 (다양한 재료/580X240X290mm/1956년 작)

8 하이테크(Hightech) 1972~1985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한 디자인



로저스(Rogers, Richard/이탈리아/1933~) & 렌조 피아노(Piano, Renzo/이탈리아/1937~) Pompidu 센터(프랑스/1971~1977년 작)

9 20세기 후반: 다양한 양식의 발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추구